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32번

에스겔 열셋째 장

Jeff Pippenger

2026-10-02

에스겔서에 나타난 경고의 기별은 '포위의 표징'이다.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고, 에스겔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여인의 죽음과 더불어 그 죽음에 대하여 그가 슬퍼하지 않은 일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다가오는 멸망을 상징하였다. 그의 행위와 그녀의 죽음은 경고의 표징을 나타내며, 예수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제시하신 장차 올 한 경고의 표징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마태복음 24:15.

로마의 군기가 성전 경내 안에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성에서 피하여야 하였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관한 두 증인은, 포위에 앞서 그 '징조'를 알아보는 일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또한 영감은 그 두 증인이 말세에 그들의 "보다 직접적인 적용"을 갖는다고 더욱 분명히 밝힌다. 에스겔과 요한이 성전 환상 가운데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주신 경고를 언급하면서, 화잇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예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에 적용된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은 급속히 성취되고 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다. 머지않아 모든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인 관심사가 될 한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과거의 논쟁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논쟁들도 생겨날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전개될 장면들은 아직 꿈에조차 그려 보지 못한 것들이다." 『증언집』 제5권, 753.

4장에서 에스겔은 '포위의 표징'을 강조하는 하나의 비유를 몸소 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에스겔은 그의 책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그의 형제들이 보기를 거부한 비유를 몸소 행하였다. 에스겔은 다섯 차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였다. 그가 몸소 행한 비유들과 기별들은, 그의 비유와 말들과 연관된 '지식'의 증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다섯 겹의 미련한 처녀들의 부류를 예증한다. 그 말들과 비유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마지막 날들에 더욱 직접적인 적용"을 지닌다.

너 인자야, 또 너는 기와 한 장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포위 공격을 하며, 그것을 향하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토성을 쌓으며,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그것을 향하여 공성추를 세우라. 또 너는 쇠 번철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고, 네 얼굴을 그것을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포위될 것이며, 너는 그것을 포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되리라.

너는 또 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지라. 네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너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햇수를 그 날수에 따라 네게 맡겼음이니, 곧 삼백구십 일이니라. 이와 같이 네가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네가 이것을 마치거든 다시 네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하라. 사십 일이라.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을 향하여 네 얼굴을 고정하고, 네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네게 줄로 동이리니, 네 포위의 날들을 마칠 때까지 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 4:1-8.

표징

“표징”이라는 말은 에스겔서에 아홉 번 나온다. 4장에서 예루살렘의 포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된다. 12장에서 에스겔은 다시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가리키는 “표징”이 된다.

인자야, 너는 패역한 족속 가운데 거하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옮겨 갈 때에 쓸 짐을 준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옮겨 가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라. 혹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생각할는지 모른다. 너는 옮겨 갈 때에 쓸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고, 저물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처럼 나아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가지고 나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네 어깨에 메고 어스름에 가지고 나가라. 네 얼굴을 가려 땅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로 세웠기 때문이다. 에스겔 12:2-6.

패역한 족속이 그 몸소 행한 비유를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에스겔에게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자야, 반역하는 집인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짐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것이다. 또 말하라. 나는 너희의 표징이라. 내가 행한 것같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여질지니, 그들이 옮겨져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에스겔 12:9-11.

예루살렘의 포위는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표징이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각각 자기들의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섭리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또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바로 이 날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에 관한 실연된 비유 가운데서 말일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표징이다.

또 아홉째 해 열째 달 그달 열째 날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날의 이름, 곧 바로 이 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 예루살렘을 치려고 대적하여 나아왔느니라.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마를 걸라, 걸고 또 그 안에 물을 부으라. 그 여러 조각을 그 안에 모아 넣되, 모든 좋은 조각 곧 넓적다리와 어깨를 넣고, 좋은 뼈로 채우라. 양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그 아래에 뼈도 쌓아 불을 피우며, 그것을 잘 끓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뼈를 삶으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며, 그 안에 찌꺼기가 있고 그 찌꺼기가 벗겨지지 아니한 가마여! 그것을 조각조각 고집어내라. 그 위에는 제비를 뽑지 말라. 이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라. 그녀가 그것을 바위 꼭대기에 두었고, 흙으로 덮으려고 땅에 쏟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격노를 일으켜 보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덮이지 않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피 흘린 성읍에 화 있을진저! 나도 장작더미를 크게 쌓으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피며 고기를 삶아 익히고 양념을 잘하며 뼈를 태우라. 그 후에 그 가마를 빈 채로 그 숯불 위에 두어 그 늦이 뜨거워지고 달아올라, 그 안의 더러움이 녹아내리며 그 찌꺼기가 소멸되게 하라. 그녀가 거짓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였으나 그녀의 많은 찌꺼기는 그녀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녀의 찌꺼기는 불 속에 있으리라. 네 더러움 속에는 음란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였으나 네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네 위에 쏟아 그치게 하기까지 네 더러움에서 다시는 정결하게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리니, 네 행위와 네 행실대로 그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의 재앙으로 네 눈의 기쁨을 네게서 빼앗으리라.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며, 네 눈물도 흐르지 않게 하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며, 네 머리의 관을 쓰고 네 발에 신을 신으며,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떡도 먹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고, 이튿날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더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성소, 곧 너희 세력의 영화요 너희 눈이 사모하는 것이며 너희 마음이 아끼는 것을 더럽히리라. 또 너희가 남겨 둔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는 내가 행한 것같이 행할지니,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떡을 먹지 말라. 너희의 관은 너희 머리 위에 있고 너희의 신은 너희 발에 있을 것이며, 너희는 애통하지도 울지도 못하고

오직 너희 죄악 가운데 쇠잔하며 서로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모든 대로 너희도 행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1-24.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의 시작과 최후의 멸망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들의 사로잡힘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셨을 때, 그분은 모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를 보셨다. 그 경고는 큰 빛을 받았던 예루살렘 백성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온다. 이 백성은 우리 앞에 경고로 놓여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주께서는 인간 대리자가 보지 못하며 또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곧 배틀크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적 고안의 결과를 보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들의 죄가 회개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경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분은 백성의 눈앞에 빛을 비추셨다. 그러나 공정하고 의로운 원칙들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빛과 진리와 공의와 자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자신들을 두었다. 이 행로는 그들의 바로 그 본성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증언보감』 제8권, 68.

알파와 오메가의 두 증인

에스겔은 초자연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 그가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지 않은 에스겔의 모습은 포위의 시작에서 알파 표징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것은 오메가 표징이었다. 멸망에 이르는 그 포위는 시작과 끝에 있는 표징으로 구획된다. 같은 예증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표징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은 에스겔의 “눈의 기쁨”의 죽음을 알파로, 그리고 백성의 “눈의 기쁨”의 죽음을 그 기간의 오메가 표징으로 제시된다. 일 년 반의 기간은 하나의 알파와 하나의 오메가에 대한 두 증인을 지닌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군대의 사로잡힘과 짓밟힘을 표상하였고, 예루살렘의 오메가적 죽음은 성소가 짓밟힘을 표상하였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모든 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며, 이 일이 이를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인자야,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화의 즐거움과 그들의 눈의 욕망과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 곧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는 날에, 그 날에 피하는 자가 네게 나아와 네 귀로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그 도피한 자에게 열려, 네가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24-27.

여섯 가지 죽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포위의 시작과 예루살렘의 죽음을 표상하는데, 예루살렘은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한 포위로 상징되는 기간에 선행되는,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을 예증한다. 포위의 기간과 멸망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구별되는 두 개의 이정표이다. 포위는 한 기간이며, 멸망은 한 시점이다. 그 멸망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에 선행되는 일요일 법이다. 짐승의 우상의 기간은 짐승의 표로 종결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표징을 제시하실 때, 노아의 날들도 함께 언급하셨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37-39.

노아의 시대에 은혜의 문이 닫혔는데, 이는 또한 1844년 10월 22일 문이 닫힌 사건으로 예표된 바 있는, 속히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의 엑서터 천막집회로부터의 기간은 닫힌 문에 이르게 하는 예언적 기간을 나타낸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셋째 천사를 대표하였으며, 셋째 천사는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인자의 임함"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노아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닫힌 문에 이르게 하였다. 윌리엄 밀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하였고, 노아의 시대에 에녹으로 예표되었다. 유다는 에녹의 기별을 밀러의 기별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밝힌다.

아담으로부터 칠대손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성도들의 수만과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며, 그들 가운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에 대하여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와, 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이 그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유다서 1:14, 15.

밀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에녹의 기별로 예표된 "심판"을 선포하였다. 에녹의 시작은 그가 "아담으로부터 칠대"라는 사실로 표지되어 있다. 밀러의 기별은 북방 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사십육 년 후 남방 왕국에 대한 "일곱 때"가 성취되었을 때, 곧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도래함으로써 끝이 났다. 심판의 때의 사자였던 에녹과 밀러는 둘 다 숫자 일곱이 확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담으로부터 칠대인 에녹과 함께 시작된 기간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이 초자연적으로 닫히기까지의 칠 일로 끝이 났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시작을 통하여 끝을 예증하신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는 다시 라멕을 낳았다. 라멕과 므두셀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또한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을 나타낸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은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으므로, 홍수의 해에 죽은 므두셀라로 상징된다. 라멕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며, 라멕은 홍수 오 년 전에 죽었다. 라멕의 죽음으로부터 문이 닫혔을 때의 므두셀라의 죽음에 이르는 그 오 년은, 에스겔의 신부의 죽음이 시작을 알린 기간, 곧 므두셀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을 예표하였다.

에녹은 1798년에 도래한 첫째 천사를 예표하였고, 라멕은 1844년 4월 19일에 도래한 둘째 천사를 예표하였으며, 므두셀라는 노아로 예표된 1844년 10월 22일의 닫힌 문에 이르기까지, 엑서터에서부터의 자정의 외침을 예표하였다. 라멕의 죽음으로부터 므두셀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섯 해는 기원전 587년부터 기원전 586년에 이르는 일

년 반을 예표하였다. 라멕으로부터 므두셀라까지의 그 다섯 해는 1448년부터 1453년까지의 다섯 해를 예표한다.

1448년 10월 31일, 요한 팔라이올로고스가 죽었고 그의 형제 콘스탄티누스 11세(마지막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의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이슬람 터키 세력의 허락을 구하였다. 그가 1299년 7월 27일에 복종한 일은 계시록 9장 10절에 제시된 둘째 백오십 년을 성취하였다. 요한 팔라이올로고스가 죽은 지 5년 후, 그의 형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을 정복할 때 콘스탄티노플 성벽 위에서 죽었다. 메흐메드는 무함마드의 터키식 파생형이므로, 632년에 첫 번째 무함마드가 죽은 일은 계시록 9장의 첫 번째 백오십 년 예언(5절에 위치함)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821년 후 '무함마드 2세'의 손에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죽음으로 그 예언은 끝났다. 죽기 5년 전에 무함마드는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것은 무함마드 2세라 불린 그 터키인에 의해 성취되었다.

마지막 황제, 곧 열한 번째인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노플 전투에서 죽었으며, 이로써 그의 형제 요한의 죽음부터 그의 죽음까지의 오 년이 식별된다. 그 오 년은, 아들 라멕의 죽음으로부터 오 년 후 방주 위로 문이 닫히던 때 아버지 므두셀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오 년에 의해 예표되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의 신부의 죽음은 라멕의 죽음으로 예표되었고, 이 둘은 함께 1448년에 있었던 요한 팔라이올로고스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뒤이은 므두셀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죽음 및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서로 부합하며, 이 둘은 함께 열한 번째 콘스탄티누스의 죽음과도 부합한다.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한 예언적 기간의 세 증인은, 짐승의 표로 종결되는 짐승의 우상의 형성 기간을 예시하며, 그것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선포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역사에서 짐승의 표로 종결되는 짐승의 우상의 형성과 서로 일치한다. 머지않아 제정될 일요일 법에 이르러 짐승의 표가 성취될 때, 예언적 "말함"이 이르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에스겔이 자신의 자의에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일치한다.

말씀하심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예표된 일요일 법령 때에, 미국의 예언적 발언은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표지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일요일 법령 때에 발람이 그의 나귀를 세 번째로 치니, 그때 나귀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이 세 번이나 나를 때리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니니이까? 내가 당신의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늘 나를 타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하였더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민수기 22:28-30.

거짓 선지자는 일요일 법령 때에 말하며, 이슬람도 또한 일요일 법령 때에 말한다. 둘 다 예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일요일 법령 때에 지체되었던 하박국의 '이상'이 말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마침내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를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하박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를 이루어 말하는 참된 선지자이다. 하박국의 '이상'은 이전에는 병어리였으나 그 입이 열리게 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입이 되리라는 약속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끊이지 아니하며, 나의 상처는 고칠 수 없어 낫기를 거절하는가? 주께서 참으로 내게 속이는 자 같으시며, 마를 물 같으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리니,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하여 내면 네가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5:18, 19.

일요일 법령의 때에, 사가랴의 아홉 달 동안의 병어리 됨은 그가 말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 되어야 함을 확증하였을 때 끝났다. 사가랴는 셋째 천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지도력을 대표하였고, 요한은 엘리야 운동,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들이게 할 회회를 대표하였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네게 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네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네가 말 못 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은 그 때에 이루어지리라."

백성은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만 하고 끝내 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8-22.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여덟째 반열에 속해 있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취한 자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들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의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누가복음 1:5-10.

모든 선지자는 마지막 날들을 나타내며, 스가랴는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다. 그는 제사장들의 여덟째 반열에 속하였는데, 이는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 간 노아의 방주 안의 여덟 영혼을 상징하는 표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둘 다 흠이

없었으나, 스가라는 가브리엘의 말을 의심하게 될 것이었다. 밀러 운동은 빌라델비아인들(흠이 없는 자들)로 시작하였으나 1856년에 라오디게아인들로 전환되었다. 마지막 날들에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스가라에게 전한 가브리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고 또한 세레 요한으로 표상된 엘리야의 기별도 나타낸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더라. 사가라가 그를 보고 놀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간구함이 들렸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고,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며 네게 알리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11-19.

사가라는 장차 올 엘리야에 관한 그 메시지가 성취될 것을 의심하였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 6.

화이트 자매는 에스겔 9장의 인침에 관한 문맥에서,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사가라의 불신앙으로 예표되었는지를 밝힌다.

자신의 영적 타락을 슬퍼하지 아니하며 다른 이들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지 아니하는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질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든 당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셨다. "그들이 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에게서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곧 주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맨 먼저 느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셨고 백성의 영적 이해관계의 수호자로 서 있던 노인들은 그 말은 바 신임을 저버렸다. 그들은 이전 시대와 같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나타남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시대는 변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불신을 굳게 하며, 그들은 말한다.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도 자비로우시므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기 위하여 다시는 나팔같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외침이 나온다. 짓지 아니하려는 이 병어리

개들이야말로 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을 느끼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멸망한다.” Testimonies, volume 5, 211.

사가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침례 요한의 역사뿐 아니라 윌리엄 밀러의 역사도 반복하는 엘리야의 기별을 의심하였다.

다섯 달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자신의 임신을 숨겼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이하시려고 이같이 내게 행하셨도다 하니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의 한 동네 나사렛이라 하는 곳에 보내심을 받았더라. 누가복음 1:24-26.

사가라는 제사장들의 여덟째 반열에 속하였는데, 이는 그의 아들 요한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사가라가 다시 말하게 된 것과 상응한다. 그와 그의 아들 요한은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여덟 영혼을 나타내며, 그들은 홍수의 물이 가져온 죽음으로부터 다섯 달, 곧 백오십 일 동안 숨김을 받았다. 그 임신의 백오십 일과 홍수의 물의 백오십 일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두 차례의 다섯 달의 기간과 상응한다.

사가라와 그의 아들 요한 역시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가 여덟째 교회인 빌라델비아로 전환할 때를 나타낸다. 사가라가 여덟째 반열에서 섬긴 때로부터 그의 아들 요한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때에 이르기까지는, 숫자 여덟이 시작과 끝을 밝히는 하나의 예언적 기간을 나타낸다. 그 예언적 기간 안에는 숨겨짐의 기간을 나타내는 다섯 달의 기간이 있다.

예언의 “말함”은 장차 임박한 일요일 법을 가리키므로, 스가라는 그의 아들이 할례의 행위로 표상된 바와 같이 인침을 받는 때, 곧 일요일 법의 시점에 말한다. 그 역사에서, 스가라가 말하는 일요일 법 이전, 다섯 달의 끝에서, 여섯째 달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기쁨 부으시니, 여인으로서는 엘리사벳은 장차 임박한 일요일 법보다 넉 달 앞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기쁨 부으심을 표상한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급히 산지로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그 태중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아오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39-45.

다섯 달이 끝날 무렵,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하며, 가브리엘의 기별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찬양하였는데, 마지막 날들에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라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마리아는 사가라보다 다섯 달 후에 가브리엘의 기별을 들었으므로, 셋째 천사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다섯 달의 숨겨진 기별이 계시된 후에 이르는 것으로 표지되어 있다. 마지막

날들에 다섯 달의 숨겨진 기별은 요한계시록 9장 5절의 첫 다섯 달이다. 마리아는 마지막 날들의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며, 그 기별에는 약 녀 달 후에 도래하는 임박한 일요일 법의 선포 직전에 다섯 달에 대한 특별한 개봉이 포함된다.

마리아의 방문의 이정표들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상징되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운동은 마리아와 요셉으로 상징되는 셋째 천사의 운동과 연결된다. 사가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지 않았던 한 교회의 직분자를 나타내며, 목수 요셉은 자비량 사업으로 상징되는 한 운동을 나타낸다. 재림신앙은 시작한 그대로 마치는데, 그것은 조직된 교회 구조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십사만 사천의 운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으로 상징되는 밀러 운동의 직접적인 친족이며, 1863년의 불신은 사가랴로 상징된다. 1863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셋째 천사의 운동은 마리아의 믿음을 나타낸다.

“하늘로부터 온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보내졌으며, 나는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들을 들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재앙들도 받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이 기별은 셋째 기별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였으며, 마치 1844년에 자정의 부르짖음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결합되었던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머물렀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전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호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무서운 운명을 피하게 하려 함이었다.” Early Writings, 277.

두 기별이 함께 결합되는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일로 표상되며, 그 시점은 감추어진 다섯 달이 드러나는 때에 이르러 도달한다. 그 지점은 두 예언이 결합되어 함께 선포되는 곳이다. 하나는 엘리사벳에 의해 선포되었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에 의해 선포되었다. 두 기별의 결합은 한밤중의 외침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결합하는 때를 밝혀 주며, 그것은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엑서터 천막집회에서 일어났다.

엘리사벳이 먼저, 그리고 이어 마리아가 그들의 선포를 전한 후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6. 엑서터에서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육십육 일의 기간은 그 녀 달로 표상되며, 스가랴가 말하였을 때, 곧 임박한 일요일 법에서 그 기간이 마쳐졌다. 그 녀 달은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을 표상하는데, 이 기별은 숨겨진 다섯 달의 기별 이후에 이른다.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두 기별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으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조시아 리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섯 달의 기간으로 시작되는 한 때의 예언의 성취에 의해 능력을 얻었는데, 그 예언은 1840년 8월 11일 그 성취의 열흘 전까지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 것은 새뮤얼 스노우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이루어진 1843년에 관한 잘못된 예측의 시정이었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이중 기별의 선포는 문이 닫히기 전의 짧은 기간으로 표상되며, 그 문은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다섯 달의 기간을 열어 주었고, 그 기간은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무름으로써 끝이 났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선포의 기간은 감추어졌던 다섯 달의 개봉 이후에 오는데, 그 개봉은 1840년 8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일어났으며, 또한 주께서 1843년 도표 위에 가리워 두셨던 표상들에서 당신의 손을 거두신 후에 일어났다.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열흘은 엑서터로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예순여섯 날과 서로 부합하며, 이중 증언은 감추어졌던 다섯 달의 개봉이 첫 번째 실망을 낳았던 잘못된 선포의 정정과 더불어 이루어짐을 밝혀 주며, 그것은 마리아가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을 만나 문안할 때에 일어난다.

일요일 법령 때에 미국은 용처럼 말하고, 이슬람의 나귀가 말하며, 하박국의 이상이 예레미야와 스가랴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에스겔은 표징이니, 곧 일요일 법령 때에 들어 올려지는 기를 나타낸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징'이라는 단어의 아홉 번의 언급 가운데 두 곳은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심의 표징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나니, 곧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질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나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에게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보였나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들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나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한 것이라. 또 그들이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나니,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나라의 영화인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들을 더럽혔음이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럴지라도 내 눈이 그들을 아껴 멸하지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끝장내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들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에스겔 20:9-20.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상징하며, 인성과 결합된 신성의 표징은 주의 "안식일들"이다. 에스겔은 포위의 시작에서 표징이며, 또한 그가 기치로 들어 올려질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표징이다. 포위의 시작에서, 보기를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하며, 그분의 "안식일들"을 더럽히는 자들 또한 하나의 표징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 마음에 세우고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의 얼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어찌 그들에게 조금인들 문의를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우상을 그 마음에 세우고 자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그의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붙잡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이키며,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에게서 너희 얼굴을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또는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누구든지, 나를 떠나 스스로 나와 분리하고, 자기 우상을 그 마음에 세우며, 자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물으려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면, 나 여호와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라.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징조와 속담이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선지자가 미혹되어 어떤 말을 하였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미혹되게 하였은즉, 내가 그 위에 내 손을 펴서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선지자의 형벌이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과 같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허물로 다시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 14:1-11.

내슈빌에서,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가랴와 같이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 곧 1840년에서 1844년까지로 표상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전 시대들에서처럼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두드러진 나타나심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자들은, 왜 그들이 경고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재림신앙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직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엑서터 천막집회에서 서로 대립하던 두 천막으로 표상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분리를 드러내는 거짓 평안과 안전의 기별의 "표징"이 된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반역의 "표징"을 지니는 반면, 에스겔은 참된 예언적 경고의 기별을 지닌다. 포위의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곧 일요일 법을 표상하는 그대에, 반역의 표징은 짐승의 표가 되며 순종의 표징은 하나님의 인이 된다.

안식일교회에 대한 은혜의 시기는 일요일 법에서 완전히 마쳐지며, 거기에는 표를 받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한 표징이 있다.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에서의 은혜의 시기의 마침은 미가엘이 일어설 때의 은혜의 시기의 마침을 예표하며, 거기에서 무리들의 죽음의 표징은 곧 곡과 마곡으로 표상된다.

그 땅을 지나가는 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의 뼈를 보면, 장사하는 자들이 그것을 하모곡 골짜기에 장사할 때까지 그 곁에 표를 세울 것이요,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에스겔 39:15, 16.

언약의 표징은 에스겔 37장에서 확인되는데, 그곳에서 죽은 뼈들의 골짜기가 생명을 얻고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 뼈들은 네 바람으로 표상된 이슬람의 기별에

의하여 생명을 얻으니, 이로써 1840년 8월 11일을 예표한다. 두 막대기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연합하는 것을 나타낸다. 뼈들은 첫째 천사의 능력 부여를 의미하고, 두 막대기는 둘째 천사의 능력 부여를 의미한다. 그 후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에 의하여 십사만 사천으로 표상된, 말세의 택하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된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두고 번성하게 하며,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세우리라. 나의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을 이방이 알리라. 에스겔 37:26-28.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한 가지 예는 인간의 더 높은 본성 안에 위치한 "영혼의 성채"가 하나님의 성소의 성채와 연결되는 경우이다. 하나님의 성채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실이 인간의 더 높은 본성의 성채와 결합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되며, 그분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에스겔은 제삼십칠 장 이후에 제삼십팔 장과 제삼십구 장을 제시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인류의 연합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룬다. 제사십 장에서는 제삼십칠 장의 언약 백성이 온 땅에 가득한 성전으로 표상된다. 제삼십팔 장부터 제사십 장까지는 38과 40이라는 숫자로 표상되듯이, 말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흥기를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일들을 계속 다룰 것이다.